

여성재단 창립 4주년을 기념하는 인사말
03-12-5

No. 1

자녀의 장래를 염두하여 한국여성재단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소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소외계층을
모두 여기에 자녀를 함께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한국여성재단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이끄러움, 이끄는
재단의 기쁨과 지극성을 위해 기부금을 쾌척하여 주신분들,
재단의 Partner로서 활동하시며 이끄러 하고 있는
이 행선들 빛나게 해주신 수혜를 받았던 여러분들
그리고 헌신적으로 재단의 사무를 담당해 주신 직원들, 주사
우리모두 한가족이라 이행선의 주영들이시니까.
주영이 재단 유익자.
모든 이 행선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로 서로 한행의 인사를 나누시길요.

KEUN YOUNG

Date

앞서 우리는 여기에 한국여성회 발간을 도모하기 위한
최초의 발간공약서란과 창립 4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출간하리라.

이제부터
성공하리라 기대서 같은 4년간의 세월이 갈게요, 그리고 2년
은 짧아 지리라.

1999년 저에게만 감동스런게 많았었던 새천년을 앞두고
우리란 여성회가 이주동행으로 의기투합했던 리제가
바로 한국여성회란과 창립이 었으리라.

창립이래 지금까지 4년간의 수련이 있었든 3년, 2년, 1년,
사흘, 며칠의 이겨내듯 인고의 세월은 짧아 지리라.

그러한 여건 속에서 청목하는 공익활동을 위한 기부문화,
우리 여성을 위한 기부문화를 임하여 내는데 4년간은
간지 않았으리라.

기금운영의
실행방안이
다양화되어
무엇
상향되어

우리재단의 기금으로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감소추세에 있는 운영의 주력예산 위축되고 있음
기금의 수익률 저하는 재단의 지리산업을 위축시키고 있음.

2002년 6월 2003년도 지리산사업의 주력은 2002년에 비해
배가 되는 631천에 달하고 있음으로 재단이 가장 중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여겨져 이 기회에 지리산사업들을 보내주신
기부자들에게 재단의 지리산사업 Partner들을 대외적으로
개별적으로 알리고 드림.

재단의 기금 운영 활동은 무진책으로 지리산사업으로 활동이
가동되기 시작 된 것으로 리정하는 있음.

2003년도에 대한 우리 재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5억 5천만원에 대한 지리산 (1002 기부 활동)을
총액 1500여명의 재단원, 기금원, 안으로 드림.

대수

자기반 기부금을 주어 내리
 자기가 기부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책임은 지는 것 등으로
 기부하도록 하는 친구를 만들자는 것이 제1차이며
 만일 수 없으면 그 후이 될지도 모른다.

<기부금제이는 노무현의 정책제안의 기부방을 채택함으로써
 기부문화 확산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 할것이다.

창립기념행사는 지난해의 대승적대
 새해를 다짐하는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2003년에 대대적으로 기여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기금으로 활용하여 원정적인 부속의 개
 2004년 한해동안 평등하게 지원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선정된 단임제위원 12명 위임하여 주신것을 장구 합니다.

우리의 생활은 때로는 한층 한층 향상되어 가는 것을
 만일 우리가 이것을 이용하여 생활의 질을 높여 주는 데에
 이용한다면,

현재 생활의 이치와 원칙을 알고 있는 자로서는
 이것을 가지고 한층 한층 생활의 질을 높여 주는
 방법으로써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생활은 한층 한층 향상되어 가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 우리 생활의 질을 높여 주는
 데에 이용한다면, 한층 한층 생활의 질을
 높여 주는 데에 이용한다면, 한층 한층 생활의 질을
 높여 주는 데에 이용한다면, 한층 한층 생활의 질을
 높여 주는 데에 이용한다면, 한층 한층 생활의 질을